

보도자료



보도 일시	2013. 9.4(수) 조간		배포 일시	2013. 9.3(화) 14:00
담당 부처	기재부	복권위사무처 발행관리과	과장 정향우, 서기관 고정삼(044-215-7830, 7832)	
	조달청	정보기술용역과	과장 김응걸, 사무관 김병조(070-4056-7225, 7299)	

제목: 조달청, (주)나눔로또 컨소시엄과 ‘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사업’ 계약 체결

- 조달청(청장 민형중)은 9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인 (주)나눔로또 컨소시엄과 ‘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사업’ 계약을 체결하였음
 - 복권위원회(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)가 지난 6월 14일 조달청에 동 사업의 발주를 의뢰한 후 40여일간의 입찰공고, 사업자 선정 평가, 계약협상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것임
 - (주)나눔로또 컨소시엄은 올해 12월 2일부터 향후 5년간 복권수탁사업자로서 복권위원회로부터 로또 및 연금복권 등 모든 복권사업을 수탁하여 운영·관리하게 될 예정임
 - 이는 온라인복권사업과 인쇄·전자복권 사업으로 양분되었던 복권시장의 통합을 통해 복권시장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운영·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됨을 의미함
 - * 현재 (주)나눔로또에서 온라인복권(로또) 판매·관리 업무를, (주)한국연합복권에서 연금복권 등 인쇄·전자복권 판매·관리 업무를 담당
-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,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

- 복권위원회는 사업추진 설명회(6.10), 제안요청 설명회(7.8) 등을 통해 사업참여 희망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평가기준 등을 입찰공고(7.3) 이전에 공개하였음(6.14~20)
- 특히 협상과정에서 “협상에 의한 계약”방식에 의거하여 제안요청서 동급 또는 이상의 장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음
- 조달청은 평가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평가 전 과정을 맡아 공공입찰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음
- 특히, 유례없이 많은 평가위원단*을 구성하여 소수자에 의한 평가 왜곡을 방지하였으며,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단을 구성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음
- * 통상적으로 평가위원은 7~9명으로 구성·운영되는 데 반해 동 사업은 총 26명(사업운영 15명, 시스템 11명)으로 구성
- 또한 평가과정에 청렴 음부즈만을 특별참관시키고, 평가위원 전원합숙 및 외부연락 차단(핸드폰 등 통신수단 압수) 등의 조치를 취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였음
- 차기 복권수탁사업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모든 복권의 판매 및 관리업무가 통합될 뿐만 아니라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복권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임
-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와의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2일로 예정된 차기 사업이 원활히 개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
□ 추진경과

- 차기 복권수탁사업 추진방안 사전 설명회(6.10)
 - 복권사업 참여 희망기업, 이해관계인 등 300여명 참석
 - * 패널토의: 권영준 교수(경실련), 채경옥 논설위원(매경), 서정욱(법조인), 나눔로또 및 연합복권 관계자 각 1인
-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 확정(6.14, 복권위)
- 차기 복권수탁사업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(6.14~6.20)
 - 사전 공개(나라장터 사이트)를 통해 제안업체 의견수렴 및 제안요청서 반영
- 차기 복권수탁사업 제안요청 공식 입찰 공고(7.3)
- 차기 복권수탁사업 제안요청 설명회(7.8)
- 차기 복권수탁사업 제안업체 평가(8.13~8.14)
 - * 전산시스템을 통해 랜덤으로 평가위원 선정·통보, 평가결과 집계는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, 청렴옴부즈만 특별참관 등 평가비리 근본적 차단
 - *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기술평가·가격평가 합산결과,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
- 복권위원회, 나눔로또 컨소시엄과 우선협상 실시(8.16~9.2)
- 조달청, (주)나눔로또와 차기복권수탁사업자 계약 체결(9.3)

□ 향후계획

- '13.12.2일 차기 복권수탁사업 개시